

# 전시 성폭력과 전후 성폭력 ‘문화’의 연속성 연구

장 수 희\*

## 요약

전시와 평화시의 성폭력을 국가 폭력과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시대와 장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평시 모두 폭력이 스며든 시간적·공간적 맥락이라는 점에서 연속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군대에 내재된 젠더 기반 폭력과 군국주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연결되는 민족적·성적 차별을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현재까지 지속되는 성폭력 문화와 연결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중층적 성폭력 구조는 계속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가해 구조는 식민지 하부권력과 군대, 행정, 식민종주국이 중첩된 형태였고, 이는 해방 후 한국군, 미군 기지촌 등으로 반복되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전시의 폭력이 ‘평화시’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은폐되며 지속되었고, 이는 미투 운동을 통해 비로소 재인식되었음을 드러낸다.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다층적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재독해한다는 것은 현재의 성폭력 문화와 지속되는 전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일본군 ‘위안부’ 서사, 성폭력 문화, 중첩, 관통, 전시 성폭력, 전후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목차

1. 폭력에 대한 인식과 분열되는 세계관
2. 중첩된 가해시스템의 은폐
3. 전시 성폭력의 지속으로서의 전후 성폭력 ‘문화’
4. 관통과 중첩의 서사들
5. 결론

## 1. 폭력에 대한 인식과 분열되는 세계관

어떤 폭력은 당대에 그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폭력으로서, 혹은 사건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미셸-롤프 트루요는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과 혁명적 봉기에 대한 구상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구상’, 혹은 ‘상상’이 유럽과 백인들이 조직한 형이상학적 세계관에서 전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노예들의 자유와 혁명적 봉기의 가능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관이 당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아이티 혁명을 자신들의 용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sup>1)</sup> 그렇다면 노예들이 자유와 혁명을 구상하고 지금-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이 가능한 세계와 그것이 인식될 수 없는 세계, 혹은 일어날 수 없는 세계는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시의 성폭력과 성노예화, 평화시의 성폭력과 성노예화에도 적용된다. 오랫동안 전시의 성폭력이 폭력적 적대가 전면화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불처벌이 관행화 되었다. 또한 평화시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여성혐오 문화

1) 미셸 롤프 트루요,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 김명혜 옮김, 그린비, 2011, 139-142면 참조.

속에서 '폭력'으로 인지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계급적 하층민 여성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삶의 한 방식으로만 얘기되어 왔다. 구체적인 성폭력, 성노예화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폭력은 지금-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것은 그 발생 시기에 따라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며, 그 인식 주체에 따라 미래적인 일이기도 하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폭력을 인식하는 일은 먼 옛날부터 반복되어 온 폭력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만두는 가장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폭력'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하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지점은 전시 성폭력에 관한 인식의 낙차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중일전쟁의 전범들을 인터뷰했던 제임스 도즈의 『악한 사람들』<sup>2)</sup>에는 위안소에 갔던 병사들에게 그들이 위안소의 여성들에게 했던 행위의 정체를 묻는 장면이 있다. 그 질문은 간단히 부인당하는데, 왜냐하면 일본 군인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주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질문은 당신이 ‘강간’을 한 것인지 묻는 것인데, 일본 군인이었던 가네코는 위안소의 시스템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통역사: 위안소에 대한 질문인데요...선생님이 거기서 여자들을 강간했다고 생각하지는—

가네코 씨: 뭐라고요?

통역사: 선생님이 그 여자들에게 성폭행을 했다고...[통역사는 존대어를 사용한대

가네코 씨: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돈을 지불했으니까요. 그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해요.<sup>3)</sup>

2) 제임스 도즈, 『악한 사람들』, 변진경 옮김, 오월의봄, 2020.

일본 군인이었던 가네코는 위안소의 운영 체계로 들어가 돈을 지불했으므로 분명히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군인의 세계는 앞서 언급한 아이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유럽의 세계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이 가담한 폭력을 인식하지 못한 것과 같다. 오랜 시간이 지나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일본 군인은 과거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혹은 미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었을까? 질문을 받은 일본 군인은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성 방문객: 위안소에 간 게 강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그였어요. 강간이었어요?

유아사 씨: 아...위안소에 간 게 [웃음] 강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죠. 예상하시겠지만 그게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강간했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음. 흠...음...정부가 만든 [불명확함] 일종의 '강간 중개소'일까...요?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요... '강간 업소'였을지도요... [조금 웃으면서] 특징이 다르잖아요...? 위안소가 강간 업소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우리를 맞을 때는 잘 웃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강간 업소로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말해야겠네요... [혀를 차대]

(중략) 그래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 했는지도 모르지만 [불명확함] 나는 아직도 위안소가 '강간 업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정말 모르겠어요...아직도 생각 중이에요.<sup>4)</sup>

유아사는 이제 위안소가 '강간 중개소'였는지, '강간 업소'였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위안소의 여자들은 웃고 있었고, 군인들은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본 그 때의 사건을 무엇이라 해야할지 아직도 알 수 없다. 그

3) 같은 책, 136면.

4) 같은 책, 137~139면.

사건은 전쟁 전에도, 전쟁 후에도 비슷한 장소의,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군인이었던 과거의 유아사와 군인이 아닌 현재의 유아사의 세계관에서는 여전히 강간이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강간이 아니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되어 있다.

가네코와 유아사는 같은 국가의 군인으로서 같은 전쟁에 참전하여, 둘 모두 '위안소'에 갔던 바가 있다. 그렇게 그들이 겪은 경험에 대한 인식은 같은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는 과정에 의해 전혀 다른 세계로 분열된다. 가네코는 자신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시 성폭력이라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속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유아사에게 같은 경험은 '강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소'가 '강간 중개소' 또는 '강간 업소'와 같은 곳"이었을지도"라는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도 생각 중이에요."로 끝맺는다. 하여 가네코에게는 강간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있던 세계가 유아사에게 있어서는 끝없이 생각을 하게 하는 불확정적인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즉 같은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후 전혀 다른 두 세계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와 '폭력이 인식되는 세계'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세계 속에서 일어난 같은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여전히 중첩되어 있다.

여기서 유아사의 세계가 가네코의 세계와 달리 분열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시스템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돈을 내는 절차를 지킨다면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아사에게 "위안소에 간 게 강간이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이 불러일으킨 것은 위안소에서 웃고 있었던 여성들이 느꼈을 감정과 처했을 상황에 대한 상상력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강간 중개소"였을가라는 미래에서 과거로 보내는 자문, "강간 업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현재와 과거의 겹쳐짐 속에 있다.

린 헌트는 사람들이 '인권'과 '평등'의 감각이 서한소설 읽기 경험을 통

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랑 이야기 속 연인들의 서신교환을 통해 법적 사회적 인간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던 여성 인물에 독자들이 자신을 동일시 함으로써 ‘여성’이 같은 인권을 가진 인간임을, 그리고 ‘평등’의 감각을 인식했다는 것이다.<sup>5)</sup> 타자화 되고,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 생각하지 못/안 했던 존재들의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 하거나, 그 존재들이 자신과 같이 살아있고 살아 온 역사를 가진 인간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서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같은 경험이 이후 인터뷰어의 질문 등 다른 입장의 말과 접촉되고 반추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폭력이 인식되는 세계’라는 새로운 세계로 분열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사건의 시점과 시간성, 그리고 그것의 겹쳐짐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질문과 서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다면적인 접근과 풍부한 해석, 그리고 언어화 되지 못했던 세계 속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감각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즉,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단순히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지나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가 존재했던 세계가 이후 다른 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인식을 재생산시키고, 지금 현재의 성폭력적 문화를 반추하게 하는지를 접촉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과거-현재-미래라는 직선적으로 발전되고 변화하는 근대적 시간성을 넘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과 인식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것이 회귀하거나 지역을 넘어서 반복되는 것을 성찰하게 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군‘위안부’의 전시 성폭력 구조를 지금 현재의 문제와 접촉시켜 읽어내고자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다룬 서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이것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성폭

5) 린 헌트, 『인권의 발명』, 전진성 옮김, 교유서가, 2022, 49-69면 참조.

력 문화와 접속되는 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군'위안부'가 전면화되지 않는 서사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행했던 성폭력의 문제가 전쟁의 전후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전시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전쟁 이후의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일본군'위안부'라는 문제가 단순히 '전쟁'과 함께 청산되는 것이 아니며, 전후 또는 정전 중이라는 전쟁 이후의 시공간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사회를 적극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문제의식임을 재인식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증첩된 가해시스템의 은폐

앞서 중일전쟁 중 위안소를 갔던 가네코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시 성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에 있는 가해자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시 성폭력의 시스템이 피해자를 폭력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속에 놓는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있다. 그러나 그 둘의 위치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듯이, 그들이 마주하는 세계 또한 완전히 다른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클로드 란츠만 감독의 〈쇼아〉(1985)에는 죽음의 수용소 트레블린카의 수위였던 프란츠 즈호멜의 증언이 있다. 쇼샤나 펠만은 그의 증언 중 유대인들의 죽음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수용소가 수목으로 둘러싸여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유대인들이 열차로 내리는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목격해야 하는지, 자신이 그 곳에 존재하는 것의 의미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에 대해 언급한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으로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상황, 그 너머,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해의 시스템이 어떻게 은폐되어 있는지, 그 속 피해자들에게 사건/상황이 벌어질 때까지의 인지불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시스템 속에서는 가담하고 있는 가해자도, 그 속의 피해자도, 그 누구도 시스템의 전모와 결과라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한 채로, 죽음으로 향해가게 된다.

*“뒤편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보아도 무엇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없었습니다.”<sup>6)</sup>*

이 은폐와 인지불가능성은 양쪽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가해의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가해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암묵적으로 예감하게 되지만) 모르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후 절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을 때, ‘몰랐던 일’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쪽은 죽음 당함으로써 혹은 죽임으로써 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게 하게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은폐되거나 침묵된 이 폭력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어 전시의 ‘폭력’으로 자연화된다. ‘자연화된 폭력’을 소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을까. 다음은 징모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가는 조선 여자들의 불안을 묘사하는 윤정모의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의 한 대목이다.

우리는 모두 규슈에 있는 군대 세탁부로 가는 줄 알았지. 아무튼 지정된 날짜에 우리는 동사무소 마당으로 나갔다. (중략)

우리는 읍으로 인솔되었고 거기서 부산행 기차를 탔다. 부산에 내려

6) 쇼야샤ーナ·フェルマン, 「声の回帰 クロード・ランズマンの『シヨアー』」, 崎山正毅·細見和之訳, 『批評空間』第Ⅱ期(Ⅱ-4), 1995, 108면 재인용.

선창으로 갔는데 커다란 창고 같은 합숙소에선 벌써 수백 명의 처녀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 처녀들 중엔 주로 농촌 처녀들이 많았지만 더러는 도시 처녀도, 여학생들도 섞여 있었다. (중략)

내가 인솔된 곳은 요코하마에서 온 군용 수송선이었는데 배에 오를 때 얼핏 남양군도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규슈로 가지 않는 게 이상해서 (중략)

또 뜻밖인 것은 선실에는 약 백 몇십명의 일본여성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모두 돈이나 벌여 보자고 많은 선금을 받고 지원해 온 창녀나 기생들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중략)

검은 통치마에 하얀 저고리 일색인 우리 조선 처녀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어디로 실러가는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다.<sup>7)</sup>

다소 길게 인용한 이 장면은 일본군'위안부' 소설이나 영화에 비슷하게 곧잘 등장하는 장면인데, 조선인 여성들이 징모되어 일본 여성들과 함께 기차나 배에 수용되고 전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다. 다르거나 비슷한 이유로 이 공간에 모인 여성들은 막연히 중국이나 일본의 '공장'에 간다고 알고 있다. 징모될 때부터, 이동의 과정 중에도 전장의 군수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거나, 전장의 위안소로 가게 될 거라거나, 위안소에 도착해서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 순박하고 어린 여성들끼리 가는 곳을 전혀 모른 채 성냥공장이라거나 피복 공장이라는 따위의 정보를 교환하는 서사 속 장면들은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민족주의적 재현의 한 요소로 해석되어 왔다. 옆에 있는 직업여성이었던 일본인 '위안부'들과 달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일어날, 혹은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조선인 여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결한 조선인 여성'의 근거로서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른바 민족주의 모델 서사 속의 클리셰처럼 사용되었다고 비판되어 온 부분

7) 윤정모,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 117-120면.

이기도 하다.<sup>8)</sup>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이 여성들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가이다. 여성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여성들의 출신이 시골이라서라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에 대한 정보도,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는, 가해의 시스템 속에 은폐되어 있고 그 외부를 상정할 수 없었다. 이 가해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지불가능성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전쟁 때면 으레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하고 불쌍한 일, 영화 속의 클리셰 정도로만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인지불가능성이야말로 전쟁 중 일어나는 체계적인 성폭력 시스템을 드러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작동시키고 있는 가해 주체를 등장시키지 않고 가해에 가담하는 자와 피해자 모두 그 제도 속을 빙빙 돌게 하며 어떤 가해가 작동하는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행정은 가해의 시스템을 잘 보여준다. 이것이 가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한편으로 가해와 피해에 연루된 이들이 유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형태이다. 이처럼 '인지불가능성'만이 유일한 가해를 이해하는 방식일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그 너머'로부터 파악하려는 인식론적 가능성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자시한 건 저, 저사람한테 물어보이쇼. 저 사람이 계원이니깐요.”

또 이러는 것이었다.

턱으로 가리키는 사람을 보니, 아까 처음에 부닥뜨린, 이마가 시퍼런

---

8) 이러한 경향은 일본인 일본군'위안부'와 식민지 여성이었던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의 위치를 교차적으로 고찰하기보다, 젠다민족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도록 만든다. 또한 일본인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드러내고 증언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을 한국의 민족주의적 '피해자 모델' 서사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경향도 보인다.(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기노시타 나오코, 「강제연행 담론과 일본인 '위안부'의 불가시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참조)

그 젊은 녀석이 아닌가. 그런데 그 젊은 서기는 자기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소린 줄을 번히 알면서도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못 들은 체 단전만 부리고 있었다.(중략) 사람을 얹혀 놓고만 병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가면서 병신을 만들 작정인 모양이었다.<sup>9)</sup>

하근찬의 장편 『야호』(1970)는 식민지 지방 행정조직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징모하는 모습과 면사무소와 같은 지방 행정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체계적으로 방기<sup>10)</sup>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소설이다. “테이신타이(정신대)”로 가게 되었다는 딸을 보내지 않기 위해 책임자를 만나러 ‘갑례의 아버지는 면사무소로 가는데 면사무소 부서의 책임자를 물으면 서로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같은 부서를 여러번 오가다가 담당자를 찾지 못하고 면사무소 밖으로 나온다. 식민지의 행정 시스템 속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될지도 모르는 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행정 속 부서 속을 오가다가 행방을 알 수 없이 은폐된다.<sup>11)</sup> 나치와 제노사이드의 본질이 나치 자신과 유대인들을 본질적으로 비가시화하기<sup>12)</sup>였던 것처럼, 피식민지 당국의 행정은 제도를 시행하는 ‘제국’과 ‘조선인 여성’이 직접 대면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작동한다. 갑례의 아버지가 뱅글뱅글 돌았던 저 건물 속 부서들, 면사무소 자체가 식민지 책임자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그 몸통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갑례의 아버지는 이 건물 속에서 실체를 만나지 못한다. 일본의 내무관료였던 사카 노부요시에 대한 연구를 했던 후지에 유키는 일반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전쟁 책임을 ‘군부’에게만 묻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군부’뿐 아니라 국가 ‘행정’의 책임도 물어야함을 지적한 바

9) 하근찬, 『야호(상)』, 산지니, 2021, 85-86면.

10) 장수희, 「단절과 고립의 냉전서사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서사 연구」, 『감성연구』 제22집, 2021, 107면.

11) 같은 글, 107면.

12) ショシャーナ・フェルマン, 앞의 글, 108면.

있다.<sup>13)</sup> 행정이야 말로 국가폭력의 시스템이며 책임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가해의 시스템에 복종하고 있었던 면사무소의 부서 계원과 서기들은 밀그램의 복종 실험의 다른 사례이다.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기억과 학습 연구’ 실험이라고 알고 있는 참가자에게 학습자가 오답 때마다 전기충격을 가하게 하면, 참가자가 전기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가할 것인가 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참가자는 실험자의 설명에 기꺼이 따르면서 학습자에게 가장 강한 단계까지 전기충격을 가한다. 타인에게 고통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실험자의 대리인이라 생각한다.<sup>14)</sup> 즉 권위에 복종하고 그 행위를 수행할 때 그 자신의 행위에서 소외<sup>15)</sup>된다. 『야호』 속 면사무소 부서 계원과 서기들은 적대감이나 가해의 의도 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일본군‘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하는 파괴적 과정의 대리자가 되었다.<sup>16)</sup>

이처럼 식민지 시기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식민지 행정, 그리고 군대, 이들이 작동하게 하는 식민종주국 자체가 가해의 시스템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 말은 일본군‘위안부’ 서사가 재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다. 서사에 가해의 시스템으로서의 식민종주국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구조가 드러나는 부분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 시기, 혹은 전쟁시기의 당연한 일로 취급되어 왔던 것들을 가해의 시스템으로 다시 읽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식민주의와 전시 성폭력이라는 구조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기 다른

13) 후지메 유키, 「사카 노부요시: 가노야 지역에 점령군 ‘위안’ 시설 원형을 만든 내무관료」,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 그 뿌리와 연속성』,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일심포지엄, 2017. 6. 22 참조.

14) 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정태연 옮김, 예코리브르, 2009, 33면.

15) 같은 책, 38면.

16) 같은 책, 31면.

위치와 은폐의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해와 피해의 서로 다른 세계의 문제는, 위치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서도 반복되고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여 중첩된 가해의 시스템을 은폐 혹은 자연화하는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 3. 전시 성폭력의 지속으로서의 전후 성폭력 '문화'

폭력을 자연화하는 제국주의, 전쟁 시스템은 패전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식민지 하부권력-군대와 행정-식민종주국으로 중층화된 가해 주체<sup>17)</sup>는 외견상 이른바 일본의 '패전'으로 무력화되는 듯했다.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는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해방'을 성노예 상태에 있었던 여성들이 성노예 생활의 해방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낙관이 빚겨가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해방!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그래야만 하듯이 꿈녀네도 해방이 돼야 했다. 해방이 돼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돼야만 했다.(중략) 오늘부터는 동무들도 해방이 됐다는 말을 했다. (중략) 뒤에서 누가, 그러만 오늘부터는 이 지랄을 안해도 좋다키는 말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중략) 사회부에서 나왔다는 지금의 여자가, 그렇다고 했다.(중략) 참말이고 거짓말이고가 있느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를 나가도 좋다고 했다. (중략) 이렇게 이날 가루개 청루거리는 이들 창녀들의 천지였다.<sup>18)</sup>

17) 장수희, 「중첩되는 전쟁과 망각되는 일본군'위안부' 서사」, 『동남어문논집』 Vol.1 No.49, 2020, 265면.

18) 황순원, 『황순원 전집(별과 같이 살다/카인의 후예)』, 문학과지성사, 1990, 133-134면.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의 ‘곰녀’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다. 가계를 위해 식모살이를 하던 중 주인집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공장에 취직하게 해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인신매매를 당해 술집과 ‘몸을 파는 집’을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해방이 되자 식민종주국 일본으로부터의 억압의 해방은 가해주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식민지 사람들 모두가 ‘해방’되었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해방’이 곧바로 식민지 여성들의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성들은 ‘해방’을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를 나가”서 “이 지랄”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지만 후식민은 식민지 시기의 구조를 그대로 잇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군‘위안부’ 서사 속 여성에 대한 성노예화 과정으로 드러나는 제국과 식민지의 행정, 인종 차별과 젠더차별로 중층된 가해주체의 중층성은 식민지 이후에도 국민국가 만들기의 상황에서 같은 구조로 반복되었던 것이다.<sup>19)</sup> 성차별과 성폭력의 국가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숲 속의 절멸 수용소처럼 은폐되어 왔다. 그리하여 ‘해방’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단절’을 요청하고 있었으나 아시아태평양 전쟁은 냉전 질서 하의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졌고 식민지는 식민지 이후의 국가시스템로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종전-미군의 점령-남한 정부수립-한국전쟁-휴전과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노예적 상황 또한 전쟁과 군부대와 함께 연장되고 일상 속으로 은폐되었다.

(중략)과거 일본군에 종사했던 한국 군인들이 일본군으로부터 한국의 국방경비대로 옮겨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초창기에는 일본의 군사 문화가 많이 전수되었다.<sup>20)</sup>

19) 장수희, 「중첩되는 전쟁과 망각되는 일본군‘위안부’ 서사」, 『동남어문논집』 Vol.1 No.49, 2020, 264면.

20) 김귀옥, 「일본 식민주의와 친일파의 합작품, 한국군 위안소 제도」,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

한국군 '위안부'를 연구한 김귀옥은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데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의 영향이 많았고, 한국 군대의 제도와 문화에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의 군대 경험이 반영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군대의 군인들의 문화가 한국 군대의 군인들의 문화로 이름만 바꾼 채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속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사 문화와 전쟁의 지속 즉, 한반도 분단의 공고화와 냉전의 일상화, 전지구적으로 계속되는 전쟁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평화시'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 '평화시'는 한반도에 있어왔던 모든 전쟁들과 냉전이 겹겹이 쌓여 있는 속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모습을 띠는 또 다른 모습의 군사주의이기도 했다. 이 군사주의는 '문화'라는 이름을 띠는 성폭력을 '기생관광'의 이름으로 공인하거나 기지촌 성병관리 정책으로 묵인해왔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평화시의 '문화'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이야기가 전쟁시에 일어나는 당연했던 일로 치부되거나, 평화시인 '지금'의 여성들과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로 여성들 사이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요 서사의 맥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이야기의 행방이 도중에 알 수 없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린다.

환송식이 끝나자, 잠시 후 일행은 출발을 했다. 짧은 먼서기의 인솔 하에 읍내로 가는 것이었다. 열댓 명이나 되는 큰아기들이 머리에 하치마키를 매고 손에는 옷 보따리들을 들고 줄을 지어 신작로로 걸어가는 광경은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처녀들의 뒤를 가족들이 따르고 있었다.<sup>21)</sup>

부', 선인, 2017, 166면.

21) 허근찬, 앞의 책, 97-98면.

이 장면은 소설 『야호』에서 징집된 여성들이 전장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국가에 의해 재생산을 담당하도록 배치된 여성들과 분리되어 전장으로 보내진 여성들의 이야기와 경험은 그 이후로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인식불가능한 곳으로의 피해자들의 이동이기도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뿐 아니라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곳에서도 '목격'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디론가 '이동' 당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독자도, 소설 속의 목격자들도 더 이상 그녀들의 삶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목격자들이 계속 살아남아 구성했던 '전후'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0부터 시작하는 '전후'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후'와 '평화시'라는 것이 이러한 '목격'과 '공백' 혹은 '행방불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노예 제도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국일본과 군대의 역사적 가해를 드러내고 책임자를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식민주의 범죄로서, 제노사이드 범죄로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000년 전범법정에서 목표로 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이후 한국사회에 어떠한 '문화'를 존속하게 했는지를 기억해야한다. 자본주의화 된 문화적 매체들을 통해 여성혐오와 타자화가 교육되고, 군사주의와 군사기지 주위의 성매매와 기생관광에 의한 '유혹문화'로 지속되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미투운동에서 목소리를 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던 행동들과 말, '어쩔 수 없는 것', '바꾸라고 할 수 없는 것', '다양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거나 인식 불가능했던 것이, 평화시에는 '문화'가 되어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에 연루시켰던 것이다.

당시 모 방송사 기자의 경험을 적은 글<sup>22)</sup>에는 처음 회식에서 처음 맞닥뜨리게 된 술자리 '문화'가 반복되면서 놀라지 않고 익숙해지게 되었다

는 글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여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도, 선배 기자로부터도 언제나 성적인 접근이나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고 쓴다. 그러나 이 고발은 고발뿐 아니라 고백이기도 했다.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술자리 '문화'에 가담했고, 침묵했으며 그 '문화'의 구성원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자이자 방관자였고 그 문화를 구성한 우리 모두가 가해자였음을 밝히며 바뀌어야 할 것은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 문화를 구성하는 자들임을 털어놓았다.

동료 법관들에게 강간'문화'를 간과하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한 법관도 있었다.<sup>23)</sup> 자신이 강간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강간 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해 왔음을 드러내면서 한국사회의 왜곡된 남성성에 대한 감각을 꼬집었다. 그리고 강간문화도 '문화'<sup>24)</sup>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침투해 있으니 이를 타파하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앞선 두 글은 전쟁이라는 비정상 상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성폭력이 평화시에는 '문화'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한편으로, 평화시에도 사회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여성과 섹슈얼리티를 담당하는 여성이 분리되어 있다. 재생산에 관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와 지원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임신중절에 대한 정보와 의료보협체계,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왜 없는 것일까? 여성들을 분단하고 분리하는 가해의 시스템과 담당자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속수무책으로 피해자만 남게 되는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것은 지난 세기 반복되었던 전시의 여성의 상황과 너무도 똑같다. 전시의 시스템은 평화시의 '문화'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2) 모 방송사 B기자, 「나는 고발한다, 그리고 나는 고백한다」, 『방송기자』 41, 2018, 6-9면.

23) 정옥도, 「강간 문화를 간과하는 나의 법관 동료들에게」, 『시사IN』, 2020. 5. 21.

24) 같은 글.

최근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한국인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이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sup>25)</sup>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공고화로 드러날 것인데, 이것을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로 설명하려는 상황이다. 다문화에 대한 차별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사회가 야만과 문명이라는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반복하며 문화 속에 젠더 기반 폭력을 내면화 시키고 있는 상황임을 드러낸다.

한반도 분단의 공고화와 냉전의 일상화, 전지구적으로 계속되는 전쟁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평화시’라는 착각을 만들어내지만, 이 ‘평화시’는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sup>26)</sup> 전쟁이 선포되지 않아도 집의 안과 밖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살해의 대상이 된다. 또, 포르노 산업 속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미군 기지촌 여성이 ‘양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거나, ‘기생관광’이라는 프로그램 속의 주인공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호명되었다. 전쟁 중 전시 국가시스템을 통해 ‘당연하게’ 일어났던 성적 폭력들은 전후 평시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관통과 중첩의 서사들

전시 성폭력의 형태만을 탈바꿈한 전후의 성폭력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의 시공간을 파고 들었다. 더이상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

---

25) 백승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몰려온다…‘차등임금’ 급부상」, 『뉴스토마토』, 2024. 4. 18

26) 맥키년,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조시현 옮김,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108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젠더 기반 폭력들이 다중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고 이를 '문화'적 특성으로 얘기하거나 문화의 '일종'으로 규정해 버리기도 했다. 전후 일상의 시공간을 채우는 '문화'로 다양한 성폭력들이 일괄되어버렸을 때, 젠더 기반 폭력들은 더이상 '폭력'으로 논의될 수 없다. 전시와 전후의 이어짐 혹은 근대적 시간성이 자리잡은 공간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날 수 없는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전시-전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려는 상상력을 시도한다. 이러한 서사들은 근대적 인식론 바깥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1981년 <TV문학관>에 방영되었던 <봉순의 하늘>이라는 드라마도 이러한 연속과 중층성의 감각을 보여준다. 일본군'위안부'였던 봉순이 친구를 닮은 가난하고 눈먼 할머니를 돌보고, 성매매를 하며 살아가는 어린 여성을 돕는다. 국가와 군대와 자본이 여성들의 삶의 가혹한 운명을 결정하고 판결해버리는 이 드라마에서 봉순의 세계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는 손자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는 두 세계의 존재와 단절을 드라마는 보여준다.

이러한 두 세계의 단절은 오랫동안 '재현불가능한 것', 혹은 '침묵'으로 논의되어 왔다. '재현 불가능한' 것은 주된 언어를 갖고 근대적 시간과 공간을 가진 이쪽 세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공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상력을 요구한다. SF 일본군'위안부' 소설이나 동화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이유는 이런 다중우주를 연결하고 중첩시키기 위함이다.

권정생의 『밥데기 죽데기』(1999)는 식민지 시기 일본을 위해 일하는 사냥꾼에게 가족을 잃은 늑대 할머니 이야기이다. 늑대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살다가 달걀 두 개로 어린이 두 명을 만들어 복수를 위한 훈련을 시킨다. 늑대가 복수를 하기 위해 사냥꾼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해방도 되었고 사냥꾼은 늙고 병들어 있었다. 사냥꾼은 늑대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

며, 3층 병실 한쪽에 있는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세상을 떠난다. 늑대 할머니는 3층 병실 한쪽에 혼자 입원해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 그 할머니의 사연을 물어본다.

침대에 누운 채 병실 할머니가 늑대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반짝거렸습니다.

“할머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좀 더 가까이 다가앉아 눈을 감아 주세요.”

“왜, 왜 그러시오?”

늑대 할머니는 그러면서 어정쩡 의자를 침대 가까이 붙이고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누워 있는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을 감고 있는데

“무엇이 보이죠?”

하고 침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어, 나무가 뿅뿅이 우거진 숲이 보이네요.”

늑대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미안마라는 나라 정글 숲이에요. 지금부터 꼭 오십오 년 전 제 나이 열여섯 살 때 거기까지 끌려갔어요.”<sup>27)</sup>

그 할머니는 늑대 할머니에게 손을 잡고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전쟁터와 위안소의 시간과 공간을 늑대 할머니에게 보여준다. 알 수 없었던 피해자의 시간과 공간이 손을 잡고 접촉하고 그 세계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늑대 할머니는 위안소가 어떤 곳인지, 일본군‘위안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그러나 늑대 할머니가 3층 병실 할머니의 손을 놓으면 더 이상 그 세계를 볼 수 없게 된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 세계에 접근한다고 해도, 지금 독자가 놓인, 늑대 할머니가 놓인 시간과 공간은 단절되어 있다. 이 거리감을 감각하는 것, 또, 이 거리감을 통해 중첩되고

---

27) 권정생, 『밤데기 죽데기』, 바오로딸, 1999, 118-119면.

관통하는 서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다중우주라는 관점에서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중우주 그 자체를 그려낸 서사는 한낱원 과학소설상을 수상한 최영희의 「뭍은 것」(2020)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여문이 있는 까치울에는 소용돌이와 함께 사람들이 도착했다. 소용돌이는 제일 처음 촌장을 데려왔고, 이후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부평택 할머니는 까치울 사람들이 모두 여문을 혈육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소용돌이로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빈손이었지만 여문만은 칼을 쥐고 도착했다. 까치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뭍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존재가 풍경을 가로막지 않고 투명해서 누구나 그 너머가 보였다. 까치울 밖은 여문처럼 뭍은 존재들과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뭍은 존재들은 서로 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고 없어진 누군가의 녀이 아닐까”<sup>28)</sup>라고 생각한다.

뭍은것들을 전쟁터로 데려가려는 이부키 교수는 뭍지 않은 소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 자들의 변형일 뿐이었다.<sup>29)</sup>

까치울 밖에서 만난 일본인 교수는 뭍은 존재들을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뭍은 존재들을 규명하고 싶어했다. 그는 독일과 폴란드에서도 뭍은 존재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극심한 긴장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생체 에너지가 ‘뭍은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갖고 있었다. 여문은 전쟁을 위해 ‘뭍은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복무하는 이부키 교수가 소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 자들의 변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사람들이 까치울로 도착했던 소용돌이 속에서 여문은 뭍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28) 최영희, 「뭍은 것」, 『우주의 집』, 사계절, 2020, 119면.

29) 같은 글, 129면.

소용돌이 너머에 있던 아이는 몹시 앓은 여문이었다. 아마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열다섯 살 여자아이일 것이다. 까치울은 그 아이가 만들어 낸 세계였다. 이부키 교수의 가설처럼 누군가의 고통이 뭍은 것들을 만들어 낸 것은 맞았다. 하지만 여문에게서 여문이 떨어져나온게 아니라, 여문이 자기 의지에 따라 이 뭍은 세계를 창조했다. 아마도 여문은 혼자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 곳에서 진창 같은 현실을 버텨 내기 위해, 자기가 빼앗긴 삶이 무엇인지 되새기기 위해 까치울을 빚어낸 것이다.<sup>30)</sup>

소용돌이 너머의 몹시 앓은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여문은 자신이 누군가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쳐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을 버티고 죽지 않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뭍은 여문과 까치울을 만들어 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게 되는 일은 일본인 교수가 뭍은 것들을 전쟁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전쟁에 뭍은 것들마저 휩쓸리게 두어서는 안 되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저 소용돌이 너머에 또 다른 우리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되었다. 그러면 뭍은 것들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알아냈으니까. 몹시 앓은 것들이 귀환하면 뭍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리라. 하지만 뭍은 것들은 진짜 그들이 돌아오길 바랐다. 그들의 귀환으로 맞이할 소멸은 죽음과는 달랐다. 그건 진짜 삶의 일부가 되는 일이었다.<sup>31)</sup>

여문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후 다른 뭍은 존재들을 구하기 위해 보이는 행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으로 나섰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들의 삶

---

30) 같은 글, 131면.

31) 같은 글, 134면.

이 우리 인식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명확한 일부로서 묻지 않게 진짜 삶의 일부로 존재하도록 한 일이었다.

‘지금도 엄존하는 군기지 부근의 성매매’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폭력과 책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성매매와 국가폭력, 책임을 부정하여 국가 주요기관인 군대와 군인들이 저지르는 성매매/폭력이 평화시의 ‘문화’와 전쟁시의 ‘폭력’으로 면죄부를 받게되는 빌미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군기지 부근 성매매와 국가는 떼놓을 수 없다.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식당’과 ‘위안소’들에 대한 기록은 전후 오키나와의 A사인바나 한국에서의 미군전용 클럽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식당, 일본군 위안소, 그리고 오키나와의 A사인바, 한국의 미군 전용 클럽, 군기지 주변의 합법적 업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군인의 성폭력, 민족차별과 젠더차별로 관통되며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국가’의 허가를 받아 한국 사회 속에 존재해 온 이른바 ‘유흥문화’에 은폐되어 있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누구에 대한 가해를 전제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장소들을 겹쳐놓기 위해서는 과거-현재-미래라는 근대적인 일직선적 시간성이나 평화/전쟁이라는 이분법적 시공간이 아닌 다른 보는 눈이 필요하다. 겹겹의 눈이란 메타포는 멀티버스를 다룬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앳원스>(다니엘 퀴 감독, 2022)를 연상시킨다. 각각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지만 여전히 폭력이 관통하는 시공간으로 본다면, 성폭력을 내장한 국가와 군대, 성폭력 문화기계인 군사주의, 민족차별, 젠더차별과 일본군‘위안부’ 제도와의 연관성을 잇는 문제의식이 시스템의 공식적 기록 속에서 제외되었던 존재들-성인 여성과 남성은 물론, 어린 여성들과 남성, 퀴어들과.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과거-현재-미래라는 근대적이고 단선적인 시간속에서 애초에 설명될 수 있을 수 있었을까. 이 근대적인 시간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천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장면

들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식당/위안소-A사인바-미군전용 클럽-을 해명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폭력이 관통하는 시공간을 직감하며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 동질감을 감각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는 만나기 어렵지 않다. 어쩌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당했던 여성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감각으로 증언을 해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송연옥은 동녕의 조선인 피해자 김순옥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함께 가라유키상에 관련된 영화인 〈산다칸 8번 창관-망향〉을 봤던 경험을 전한 바 있다.<sup>32)</sup>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위안부’였던 김순옥의 가라유키상에 대한 감각은 “가혹한 운명에 농락당한 같은 동료”<sup>33)</sup>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당시까지 가라유키상과 일본군‘위안부’를 분리하여 다르게 다루어왔던 연구자였던 송연옥이 가라유키상부터 일본군‘위안부’까지 시대를 달리하며 존재해온 여성들의 연속성과 중층성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sup>34)</sup>

## 5. 결론

이 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서사를 다중의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재독해보았다.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이나 서사화된 소설과 영화의 익숙한 서사의 똑같이 반복되는 민족주의 비판에서 더 나아가 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이 인지할 수 없었던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전쟁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불처벌 되었던 것이 평화시에는 문화적인 것으로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자행되었음을 논했다. 이를 위해 폭력의 관

---

32) 송연옥, 「제국의 성관리 정책과 인신매매」, 장수희 옮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피해자중심 해결』, 동북아역사재단, 2020, 16-18면.

33) 송연옥, 같은 논문, 17면.

34) 송연옥, 같은 논문, 18면.

통과 중첩의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는 일본군'위안부' 서사들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다층적 세계 구성의 가능성에 대해 논해 보았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2024)는 평화와 전쟁, 일상과 지옥이 공존하는 상황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바로 옆의 수용소장과 가족의 일상으로 보여준다. 담장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담장 바로 옆에서는 아름다운 화단이 가꾸어지고 있고, 즐거운 일상이 꾸러지고, 직장의 승진이나 발령에 고민한다.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없는 곳이라고 인식된 지역에서는 무기를 팔고, 전쟁에 돈을 보탠다. 매일 매일 들려오는 국경 너머의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을 보내는 '우리'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나치 장교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익을 보는 공간'이라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제목이 죽음을 댓가로 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여기'의 세계를 무엇으로 정의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은 지속되는 폭력의 시공간을 어떻게 감각하며 잊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이어져 있다.

| 참고문헌 |

- 황순원, 『황순원 전집6(별과 같이 살다/카인의 후에)』, 문학과지성사, 1990.
- 권정생, 『밥데기 죽데기』, 바오로딸, 1999.
- 윤정모, 『에미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
- 최영희, 「뭉은 것」, 『우주의 집』, 사계절, 2020.
- 하근찬, 『야호』(상), 산지니, 2021.
- 드라마 〈봉순의 하늘〉, 1981(<https://www.youtube.com/watch?v=mXx-ba64488>).
- 미셸 롤프 트루요,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 김명혜 옮김, 그린비, 2011.
- 제임스 도즈, 『악한 사람들』, 변진경 옮김, 오월의봄, 2020.
- 린 헌트, 『인권의 발명』, 전진성 옮김, 교유서가, 2022.
- 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정태연 옮김, 에코리브르, 2009.
- 김귀옥,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선인, 2017.
- 도시환 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피해자중심 해결』, 동북아역사재단, 2020.
-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 ショシャーナ・フェルマン, 「声の回帰 クロード・ランズマンの『ショアー』」, 崎山正毅・細見和之訳, 『批評空間』 第Ⅱ期(Ⅱ-4), 1995, 104-130면.
- 장수희, 「단절과 고립의 냉전서사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서사 연구」, 『감성연구』 제22집, 2021, 97-117면.
- 후지메 유키, 「사카 노부요시: 가노야 지역에 점령군 '위안' 시설 원형을 만든 내무관료」,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 그 뿌리와 연속성』, 일본군 '위안부'연구회 한일심포지엄, 2017. 6. 22, 21-29면.
- 맥키넨,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조시현 옮김,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107-143면.
- 기노시타 나오코, 「강제연행 담론과 일본인 '위안부'의 불가시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99-121면.
- 모 방송사 B기자, 「나는 고발한다, 그리고 나는 고백한다」, 『방송기자』 41, 2018.
- 정옥도, 「강간 문화를 간파하는 나의 법관 동료들에게」, 『시사HN』, 2020. 5. 21.
- 백승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몰려온다…'차등임금' 급부상」, 『뉴스토마토』, 2024. 4. 18.

<Abstract>

##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Postwar Sexual Violence Culture

Jang, Soohee

How can we understand sexual violence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in relation to state violence and accountability? Despite the differences in era and location, if we consider both wartime and peacetime as temporal and spatial contexts permeated by violence, a critical perspective emerges that connects the state's and military's inherent gender-based violence, militarism as a cultural machine of sexual violence, and ethnic and gender discrimination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This perspective can serve as a gateway to unveiling the stories of those excluded from the official records of these systems—not only adult women and men but also young girls and boys, queer individual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interprets the narrativ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ithin multiple temporalities and spatialities. Moving beyond the familiar critiques of nationalism repetitively depicted in testimonies, novels, and films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is study reveals aspects that were beyond the comprehension of these narratives. Furthermore, it discusses how gender-based violence, which was normalized and went unpunished during wartime, continued to be culturally perpetuated and repeated during peacetime. To this end,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multi-layered world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s by examining th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of 'overlapping and penetration' of violence revealed in these narratives.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multiple temporalities and spatialities evident in Jeong-saeng Kwon's "Bapdegi Jukdegi" and Young-hee Choi's "Mulgeungeot."

Key word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rratives, culture of sexual violence, overlapping, penetration, wartime sexual violence, postwar

투 고 일: 2025년 2월 27일

심 사 일: 2025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5년 3월 16일

수정마감일: 2025년 3월 28일